

가키에몬 가마

가키에몬 가마는 가족 경영 도자기 공방으로서 아리타 지역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하며, 1640년대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사카이다 기소에몬(1596~1666)은 일본 자기에 화려한 우와에(*overglaze enamel painting*, 상회)를 더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인물입니다. 이 공적으로 가키에몬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고, 그 이후에는 후계자들이 이 이름을 사용해 왔습니다. 가마의 부지 내에 있는 고도자기 참고관에는 1670년대부터 1700년대에 유럽으로 보내는 수출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대형 항아리와 꽃병 등 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온 대표적인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.

가키에몬 가마의 부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적어도 200년 이상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. 현재는 현 당주인 15대 가키에몬(1968년~)의 개인 작업 공간 및 주거지 일부로서 사용되고 있으며, 수십 년마다 지붕을 교체해야 하는 전통적인 초가지붕이 특징입니다. 근대적인 공장과 공방은 약 40년 전에 14대 가키에몬(1934~2013)의 지휘 아래 세워졌습니다. 메이지 시대(1868~1912)에 완성된 전통적인 장작 가마는 소나무가 연료이며, 15대 가키에몬 본인의 작품으로 발표한 유백색의 특별품 ‘니고시데’라고 불리는 작품을 굽기 위해 1년에 3~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. 가키에몬 가마에서 만들어지는 그 외의 자기 대부분은 가스 가마에서 구워지고 있습니다.

일족에서 대대로 계승되어 온 가키에몬이라는 이름에 포함된 가키(감)에 경의를 표해 부지 내의 별채 앞에는 큰 감나무가 있습니다. 이 별채는 매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되는 아리타 도자기 시장 기간에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.